한라시론

'농민수당'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문 영 인
제주농업생명과학박사연구회

지난해 7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됐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까지의 경과를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58개 도내 농업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모여 '제주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조례'에 따라 제주지역에서 주민발의 형태의 조례제정에 필요한 청구대표자와 서명을 받을 사람에 대한 증명서 발급요청을 시작으로 서명 작업에 착수해, 조례제정에 필요한 도내 유권자의 1/2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에 2019년 10월부터 70여일간 74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2019년 12월 23일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듬해인 2020년 4월 도의회 도정질문 시 월 10만원 농민수당 지원에 대해 도지사는 "현재 여유재원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 때 거론된 예산규모 620억원은 도내 농가를 3만호로 볼 때 가구당 12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36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을 과다 산출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곳은 전라남도 해남군이며 2018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수당을 지급한 반면, 제주도에선 정책당국이나 의회에서 손을 놓고 있음에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주민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해남군보다 2년이나 늦었고, 이 조례에 근거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수당"을 받게 되는 것은 2022년부터이니 3년이나 늦은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엇이 부족해서 재정 자립도 5%인 기초자치단체보다 늦어졌는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일이다.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목적은 농업인들의 농업활동으로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며, 농업인의 권리를 누리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농업인은 스스로 공익적 가치를 통한 미래사회의 주체임을 인식해 마을 공동체 활동참여와 생태계의 보존 및 모든 자연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사용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부여 된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돼 있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해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자로서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농가별로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균등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있다. 농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통장이 확인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붙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 된다.

조례에 의하면 2022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됐는데, 당초 '주민발의 조례안'에는 농민수당 지급 금액이 월 10만원으로 명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 제정 공포된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예산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주민발의 조례 안을 마련한 후 해체되었을 '제주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수고했던 분들이 다시 힘을 모아 예산확보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

편집국 25시

2020년과 다른 2021년 제주

부 미 현
정치부 차장
bu8385@ihalla.com

2021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제주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장 큰 변화는 제주도민을 비롯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다.

정부는 2월 말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8일 코로나 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꾸려, 민간 전문가 등과 접종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마스크 쓰기는 물론 일상에 제약을 두는 희생을 감수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연말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여파로 전국적으로 적용된 특별방역 대책에 따른 경제적 고통도 감내하고 있다.

백신 접종으로 전 국민이 집단면역에 이르려면 올 연말은 돼야 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터널 속 암흑 같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희망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변화다.

지난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해 모두에게 답답함을 줬던 제주의 중요 현안들도 올해는 하나 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찬반 갈등으로 도민사회를 갈라놓았던 제주 제2공항은 도민 여론을 물어 사업의 향방을 정한다.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공을 들여야 했던 도민 여론 청취와 공감대 형성에 무지했던 대가를 그동안 제주도는 혹독히 치렀다. 이번 진행되는 여론조사 이후에도 결과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정부와 제주도, 도민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4·3 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안도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것을 고려할 때 국정과제인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마무리지어야 할 마지노선인 셈이다. 이제는 국가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게는 기다려 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뉴스-in

도, 정기인사 따른 회식금지 조치

공직자 방역지침 준수 당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직자들에게 올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회식 금지 등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

제주도 총무과는 13일 정기인사 예고를 앞둔 12일 도본청, 직속기관, 행정시 등 전부서에 공문을 보내 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대책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모든 식당이 5인 이상 집합 금지(2~3명 테이블 나눠 앉기 등 인원 쪼개기도 금지) 상태임을 강조.

도는 "방역지침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 오은지기자

관광공사 흑자 가능성 언급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이 올해 흑자경영 가능성을 언급해 실현가능성에 귀추가 주목.

고 사장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지난 2018년부터 이어져 온 재무 위기에서 벗어나 마침내 흑자경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조심스런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며 이를 위해 "팬데믹 상황의 단계적 회복에 맞춰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언급.

이에 제주관광공사 안팎에서는 "전 사장이 제주도 보조금으로 적자폭을 줄였던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공사 재무제표를 보면 그런 희망을 쉽게 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 고대로기자

'탐나는전' 홍보 미흡 지적

○…안동우 제주시장이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가맹점 확대 등 추진 실적과 홍보가 미흡하다고 지적.

안 시장은 13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탐나는전 카드단말기 사용 홍보와 설치에 주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재차 강조.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탐나는전의 가맹점 확대 노력과 함께 2022년 국비 확보 목표액인 6000억원 달성을 위한 각 실국별 노력을 강조했다"고 언급. 문미숙기자

사설

확 꺾인 코로나19, 집단모임 '복병' 경계를

최근 확 꺾인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지역 곳곳의 감염 '복병'을 최우선 주의해야 할 시점이다. 대규모 전지훈련팀이 몰려오고, 경찰 승진시험에 의한 집단 모임이 적잖이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관계 당국이 최상의 방역대책을 강구하겠지만 '혹시나' 하는 우려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은 지난달 20~30명 발생으로 급증세를 타다 이달들어 1일 13명, 3일 10명 발생 이후 계속 한 자릿수 발생 추이다. 10일, 11일 각 2명에다 12일 1명 발생에 그쳤다. 감염 확산세 진정에도 소규모 확진 사례들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 와중에 3700여명에 이르는 전지훈련 선수단 내도와 이번 주말 400여명의 제주 경찰 승진 시험은 매우 우려스럽다. 전지훈련 선수단은 12일 기준 78개팀 1700여명이 입도했고, 다음달까지 52개팀 1500여명이 들어올 예정이다. 단시일에 많은 인원이 들어와 집단훈련을 실시한다는 사실로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다. 오는 16일 도내 대학에서 치러지는 2021년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도 걱정된다. 도내 해경 204명, 국가경찰 225명이 대학별 시험장을 찾게 돼 실내 시험장이란 특성 때문에 각별한 우려를 낳고 있다.

도는 내도하는 전지훈련 선수와 관계자 전원에 대해 입도전 진단검사와 음성판정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경찰 승진시험도 시험장 밀집도 최소화와 응시자 두 차례 체온측정, 유증상자 별도 응시, 감염관리 전담팀 운영 등 대책을 마련했다. 아무리 철저한 코로나19 맞춤형 방역대책도 함께 모여 이동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방역의 특성상 감염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집단 모임이 감염원의 새로운 '복병'이 안되도록 방역에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선 안된다.

농작물 한파피해 속출, 현실적 지원책 필요

최근 폭설을 동반한 한파로 제주지역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면서 도내 농작물 피해가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 등 월동채소의 언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큰 일이다. 아직 수확하지 못한 노지감귤에도 냉해가 발생하는 등 농민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이어진 폭설·한파로 월동채소와 노지감귤에서 언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1차 피해 집계 결과 전체 농작물 재배면적 2만5770ha 중 7144ha(27.7%)에서 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동무의 경우 전체 재배면적의 40% 이상 냉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폭설·한파 피해는 월동채소만이 아니다. 현재 수확작업을 끝내지 못한 노지감귤도 비상이다. 나무에 달린 감귤 일부가 얼거나 마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 키위는 궤양병, 밭작물은 잎끝 마름 현상, 시설과채류는 냉해와 생육부진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주말부터 농작물 피해 증상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농작물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본다.

연초 들이닥친 폭설과 한파로 농작물 피해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눈도 많이 내렸지만 한파도 매서웠기 때문이다. 제주지역에 한파특보가 57년 만에 처음으로 내려진 것만 얼마나 추웠는지 짐작할 수 있다. 제주도는 폭설·한파 피해 농가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재해보험 지급 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행정에서는 피해 신고를 못하거나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피해 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제대로 나올지가 의문이다. 늘 그렇듯이 1차산업에 대한 피해 지원은 야박하기 그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참에 기상이변 등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 명 : 망 고성철(1973. 1. 29생)
•최후주소 : 제주시 우정로7길 7, 702호(외도일동, 대송파크빌)
상기자는 2020년 8월 1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은 2021년 1월 11일 제주지방법원 2020느단10252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 제주시 우정로7길 7, 702호(외도일동, 대송파크빌)
2021년 1월 14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홍 영 순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빙의·신들림 증세로 고생하시는 분
상담환영
◈ 전화 · 대면상담 무료
◈ 빙의천도 최고전문가
영가천도, 빙의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시 삼무로 47 3층(연동)
064)746-0789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524호
동구치과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 장 신 동 구
중앙신협(신축) 2층 동구치과의원
제주소방서 제주대 시청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

용강동
가족묘지용 매매
묘지허가 가능
연락처 010-6360-9167 010-7666-2310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단체반 수시모집
즐거운 삶과 다이어트를 위하여
탐라댄스교실에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사교댄스 : 지루박, 부르스, 트로트, 탱고, 민요
시간 평일~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댄스스포츠 단체반 : 자이브, 룸바, 왈츠
시간 토요일 오후 5시 ~ 오후 6시
시간 화요일 오후 7시 ~ 오후 8시
자격 : 개인, 부부, 직장인 단체
나이 관계없이 걸을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지도
탐라댄스스쿨
종합터미널 2층 ☎753-5308